



2022년 6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28.(화)	담당부서	화학산업팀
담당과장	강규형 팀장(044-203-4930)	담당자	배정원 사무관(044-203-4933)

CJ,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

- 산업부-CJ제일제당, 그간 협력 성과 공유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생분해성 플라스틱*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·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기반(인프라) 구축을 지원하였으며,
 - * 특정 분해환경(토양, 해양, 수계)에서 특정기간 동안 90%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,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.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
 - COO(최고운영책임자)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기반(인프라)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, CJ가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직용 사례로 선정됨
 -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,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,
 - 특히,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
- CJ제일제당은 100% 바이오매스(생물 에너지원)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(PHA)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하였으며,
 -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(amorphous PHA)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함
 - 동 회사는 '25년까지 연간 6.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,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,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

-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.28일(화)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(CJ블로섬파크)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함

《 방문 개요 》

- ▲ 일시/장소 : '22.6.28(화), CJ 제일제당 통합연구소(CJ블로섬파크, 광고)
- ▲ 주요 내용 : 성과사례 발표, 연구소 시찰,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
- ▲ 참석자 : (산업부) 소재부품장비협력관
(업계) CJ제일제당사 COO(최고운영책임자), CJ제일제당사 전략지원실장 등
(유관기관)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 등

-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 수출지원까지, “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”라고 격려하면서,
 -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새로운 소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,
 - 아울러,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,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함
- 한편,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특히 유럽연합의 SUPD(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)¹⁾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·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²⁾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함

1) Single Use Plastic Directive('21.7월 발표) : 종이, 전분 등 화학·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 (Natural Polymer)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·판매를 제한

2) 제10차 한-유럽연합 상품무역위원회(4.5일), 한-유럽연합 통상장관 면담(6.9일) 등 계기 既 언급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배정원 사무관(☎044-203-49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